

2010 국정감사

野 “4대강 예산 삭감” 與 “나라살리기 사업”

■ 여야 첫날부터 기선잡기 팽팽... 상임위별 쟁점은

행안위 지자체 자립도·농식품위 채소값 공방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정부·기획재정·행안·농식품위 등 12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서민 국감’을 표방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인 친서민과 ‘공정환 사회’를 뒷받침하는 정책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나,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과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이 순항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는 해 못지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자주재원을 확보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자체에서 지방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며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은 지원관실이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사용 중인 것과 관련, “기존에 차적조회 전산망이 연결됐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야 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치인 뒷조사 의혹, 공문서 파괴 및 증거 인멸, 검찰의 소극

적 녹장 수사 등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조사를 통해 진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도 논란이 됐다. 조영택 의원은 “올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범비 과다 전용 등 시장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나라살리기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총리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위=농림수산물부 국감에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채소값 대책이

쟁점이 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2005년에는 겨울 대과·양파·마늘 파동, 2006년에는 가을 무·배추 파동과 겨울 배추 파동, 2007년에는 겨울 배추·대과 파동, 2008년에는 가을 배추 파동, 2009년에는 배추·마늘 파동, 2010년에는 배추 파동이 일었다”면서 “내년엔 무슨 파동이 일지 벌써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천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천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기 위해 감사장을 방문하고 있다.

■ 국감 브리핑

4대강 잦은 설계 변경... 영산강 준설량 증가

강기정 의원 지적

4대 강 사업의 보, 준설량과 실시계획이 애초 계획된 마스터플랜에서 수십 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4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4대 강 준설도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 대상 62개 공구 중 지난해 발표된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천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천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6공구의 경우 보의 높이가 애초 510m에서 512m로 높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경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업 확정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준설량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 6공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 준설량은 620만m³이었지만, 실제 확정고시된 준설량은 810만m³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4대 강 사업 실시계획은 올해 1월 처음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8월까지 32차례나 바뀌었고, 보의 높이가 변경된 공구도 6곳이 나왔다.

영산강 6공구의 경우 보의 높이가 애초 510m에서 512m로 높아졌다.

한중 FTA체결 농어업 피해 최대 3조4천억

정해결 의원 지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10년 뒤 농어업 피해 예상액이 최대 3조4964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정해결(한나라당) 의원이 3일 농촌경제연구원과 수산경제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10년 뒤 농업부문에서 최소 2418억원에서 최대 2조358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수산업계 피해액은 최소 7532억원에서 최대 1조137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 채소 7151억원, 과일류 1305억원, 축산물 1884억원 상당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41.5%인데 반해 중국은 15.2%에 불과해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보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과 중국 간 농산물의 시장비교 우위를 보면 중국 우세 품목은 236개인 반면 한국 우세 품목은 40개였다. 또 가격비교우위 측면에서도 중국 우세 품목은 116개, 한국 우세 품목은 16개였다.

이밖에 한·EU(유럽연합) FTA로 인한 10년 차 농어업 생산액 감소는 256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품목별 최대 피해액은 곡물류 8789억

“천안함 침몰 당일 北 잠수정 출동 작전 전개”

신학용 의원 밝혀

천안함 사고가 터진 3월26일 군 교신망을 통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모선의 출동 사실이 전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음에도 정작 함침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6시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며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시별 중이론 내내 출동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한 “사건 직전인 오후 8시45분에도 제2함대 정보실은 전 함대에 당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염도 등지에서 해안포 10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1문만 미전개’라는 내용으로 정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F1 경주장·국립소록도 병원 현장 점검

문방위·복지위 등 현장밀착형 국감 주목

올해 국정감사가 현장밀착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낙동강유역 환경청(11일), 한강유역 환경청(14일), 금강유역 환경청과 영산강유역 환경청(19일)을 잇따라 찾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생태 환경, 침수 문제, 준설도 문제 등 현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기국회에 앞서 10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가진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국감 기간인 오는 7일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뒤 다음날 오전 영화제 참석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문방위는 15일 영암 포틀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장도 찾는다.

행정안전위는 각 광역단체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와 재래시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등을 찾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민생국감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2일 경 참특공대의 대테러 진압훈련장을 찾아 안전 확보 상황을 점검한다.

농림수산물위원회는 수입 농수산물에 늘어나는 데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에 위치한 농수산물보관창고 검역현장과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다.

보건복지위는 한센병 환자들의 거주 및 요양 실태 점검을 위해 15일 국립소록도병원과 여수 애양원을 찾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3년만에 호남방

광주국세청 국감 14일 방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날 중순 3년 만에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전 대표가 급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호남과 충남을 담당하는 ‘감사 2반’에 배속돼 14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를 위해 광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감 활동의 일환이지만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약세 지역인 호남을 찾겠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값비싼 전기요금/난방비 태양광, 태양열 설비로 대비하십시오 Save Energy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온수기 시설 설치사업

누진세 해방 및 전기료 80% 절감효과 난방비 획기적으로 절감해보세요 ~

3.0kw 설치기준 800 만원

설치효과 월 평균 90,680 원 절감

설치전 월 평균 470kwh 사용으로 요금 103,050원

설치후 월 평균 140kwh 사용으로 요금 12,370원

300리터 설치 금액 350만원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062-268-5118 / 011-9435-0441

자연을 사람이 하나되는 친환경 기업 정우엔지니어링 JEONG WOO ENG CO., LTD.

www.dreamkorea.biz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럼,방지기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히 인공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휴전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부종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신제품 무광 부어 사용하는 - 강력접착지등수평바닥재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에 관용하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품질보증업체입니다. GORE-TEX

광주·전남 대리점

광산구 062)941-3266 북 구 062)433-2225 여 수 061)662-3002 남 구 062)430-5777 순 천 061)746-5556 해 남 061)532-9789 서 구 062)372-7704 나 주 061)333-7789 동 구 062)234-6698 목 포 061)242-2220